

## 授業施設과 共用施設

劉 香 山

(誠信女大 教育學科)

### I. 大學教育의 일반적 傾向

大學教育은 初·中等教育과 비교해 볼 때 “대단히 많은 측면에서 점차로 平衡狀態를 이루어 가고 있다.”<sup>1)</sup> 동시에 大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類型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sup>2)</sup>

첫째, 대학은 다양한 학생들이 증가하는 것을 調整할 것인지, 아니면 知的 成就基準을 강화함으로써 傳統的인 學問의 권위를 다시 찾을 것인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둘째, 政策面에서나 統制面에서 학생이 학습할 때 대학이 상당한 권위를 보일 것인지, 아니면 현행 教育課程과 學點制度 등을 現狀維持하려고 할 것인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셋째, 學問을 위해서 서로 분리되어 있는 재中立的인 狀況에서 협상유지하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社會의 병폐에 대하여 적절하고도 協調的인 노력을 할 것인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在內하고 있으면서도 전반적으로 教育의 흐름은 쉴 새 없이 地域社會와 統合되어 가고 있고, 學問의으로도 인접된 學問들간에 통합되어 가고 있다. 소위 이것을 ‘인터디시프리너리 사이언스’(interdisciplinary science)라고 한다. 또한 英國을 위시한 여러 나라들은 教育의 機會를 확대하기 위해 地域社會

人에게도 학교를 개방하고 있다.

이와 같은 大學教育의 흐름은 初·中等教育의 흐름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初·中等教育의 흐름이 大學教育의 그것과 같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大學은 2000년대에 가서는 현재 지나치게 專門化된 教育課程을 중화시킬 수 있는 一般敎養을 어떻게 計劃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한다.<sup>3)</sup> 그러나 앞으로 人文學(Humanities)分野의 대학은 지나치게 專門分野로 나누어진 大學校와 공동연구를 하여 人文學의 ‘중화적인 기능’을 활발하게 계속 발휘할 것이다.

전통적인 教育課程은 서서히 學問과 學問이 서로 연계되고 통합됨으로써, 또는 ‘問題解決法(problem-solving method)’이라는 接近方法을 통한 研究活動들에 의해서 점진적으로補強되어 질 것이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은 文學, 哲學, 歷史, 科學, 數學, 社會科學 등의 분야에서 연구할 수 있고, 이러한 分野들이 통합된 教養教育은 大學教育의範圍를 쉽게 구성시켜 줄 것이다.

職業教育은 지금까지 대학이 생각해 왔던 편견에서 탈피될 것이고, 大學街에서는 연중 계속 교육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은 좀더 學問을 깊게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것이다.

현재 專攻別로 나누어진 教育課程에서 실시되는 追加試驗은 專攻別 綜合試驗으로 代替될 것이다.<sup>4)</sup>

大學은 점차로 융통성 있는 教育 프로그램에 의해서 教授와 학생의 관계를 보다個別的인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計劃은 '情報傳達하는 教授'가 아니고 '知的 探究를 하는 상당 수준에 도달된 學者'인 동시에 '학생들의 學習經驗을 직접 도와주는 충고자'로 탈바꿈시킬 것이다.<sup>5)</sup> 이와 같은 '教授—學生의 關係'는 바로 '初·中等學生—教師의 關係'와 백을 같이하고 있다.

이상에서 大學의 教授(instruction), 教育課程(courses) 및 教授—學生의 관계 등의 특징을 찾으면 첫째, 大學教育의 傾向은 地域社會中心이고, 동시에 人間中心이라는 점이다. 둘째, 위의 첫째 경향은 大學教育이 初·中等教育과 흐름을 같이하는 統合的이고, 開放的인 교육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大學教育의 경향은 이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大學教育施設의 특징을 바꾸어 놓고 있다. 그 결과로 施設은 地域社會施設과 연계가되어 地域住民은 大學施設을, 학생은 地域社會施設을 서로 共用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大學은 共用的인 施設을, 점점 講義室單位中心의 學生集團 크기에 맞추어서 융통성과 적응성을 발휘하는 多目的的 教室과 공용적인 教室로 편리해 나갈 것이다. 예를 들면 美國의 경우 '5~10명 단위의 教室'에서부터 '500명 단위의 教室'까지 생길 것이라고 한다.<sup>6)</sup>

이와 더불어 大學은 大衆教育을 증진시킬 수 있는 視聽覺器材 또는 그 외에 關聯器材 등을 활용하도록 하게 할 것이다. 大學 行政當局은 教授들의 講義가 다양한 데서 생기는 大學教育의 질의 차이를 보완하는 테 빌레비전이나 필름 등이 도움을 주기를 바라고 있다.<sup>7)</sup>

大學教育의 질은 大學教育施設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大學教育의 전반적인 傾向에 일치하는 統合的이고, 開放的인 교육을 위한 多目的的이고 共用的인 施設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大學教育施設을 상징하는 곳은 圖書館이다.

말하자면 도서관은 大學의 두뇌인 것이다. 그리고 圖書館 機能을 가장 효과적으로 자극시켜 주는 곳이 바로 授業施設인 각종 理論講義室, 각종 세미나室 및 각종 實驗·實習室이다.

## II. 大學의 授業施設

모든 學校의 教育施設은 地域社會와 연결되고 학교끼리 연결될 때, 教育效果를 가장 잘 발휘시킬 수 있는 多目的性과 共用性을 가지며, 經濟性을 발휘시킬 수 있는 運營的 機能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背景을 원칙으로 한 教育施設은 각종 教育用地, 각종 教室, 각종 서비스 센터(空間)로 구분된다. 教具, 教育機器, 教育資料, 建築設備(the attached furnishing)(防音, 防署設備 등) 등은 각종 用地, 教室, 서비스 센터의 空間에 위치하는 設置物이다.

대학의 경우, 授業施設은 위와 같은 分類에 따르며, 각종 教育用地과 각종 教室을 포함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각종 教育用地(實習地, 自然園, 運動場을 포함)를 제외하고, 각종 教室만을 다루고 있다. 大學의 각종 教室이란 앞에서 지적한 대로 教授方法에 따라 분류하는 理論講義室(lecture hall), 세미나室, 實驗·實習室 등이다. 따라서 넓은 意味의 授業施設은 각종 教育用地를 포함시키지만 좁은 의미의 수업시설은 각종 교실만을 말한다. 각종 教室은 위에 소개된 세 가지 유형의 空間을 말한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講義室이다.

大學 講義室(lecture hall)은 教授方法에 의해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대학은 理論講義, 세미나活動, 實驗·實習 등의 教授方法을 취하고 있다.

講義室은 單科大學의 專門分野의 특징에 따라서 그 規模, 構造, 材料, 色彩 등의 建築條件과 設備의 設置, 環境衛生 條件, 管理方法, 活用方法 등이 다양해진다.

또 한편 綜合大學校 行政當局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講義室을 여러 單科大學에서 共用해 주기를 바라며, 모든 教育課程이 하나의 講義室에서 행해지기를 바란다. 심지어는 實驗·實習과 이에 관련된 理論講義를 통합하여 하나의 空

間에서 행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물론 이렇게 하나의 空間을 多目的的으로 그리고 共用的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충분한 經濟的 의미와 함께 管理上의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綜合大學校의 行政當局이 다양한 特殊性을 충족시키기 이전에 多目的的이고 共用的인 講義室의 基本條件를 통해서 講義效果를 발휘할 수 있는 運營的 機能을 찾아야 한다. 그레야만 講義室을 계속 新築하지 않고도 기존 강의실을 改造할 수 있는 方法과 經濟的 效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1. 理論講義室<sup>8)</sup>

大學(校)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취해지는 教授方法은 理論講義方法이다. 이 방법은 教授進行 (instructional procedures)이 대단히 단순하다. 集團學生數는 ‘5~500명 정도’<sup>8)</sup>이고, 教授는 講서內容을 인용하고, 암기시킨다. 또한 實驗에 義 활용될 여러 가지 理論을 제시한다. 教授는 입으로 설명되는 내용을 잘 이해시켜 주는 ‘오버헤드 프로젝터’를 사용하기도 하고, 칠판과 분필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때에 학생들은 보통 듣기와 쓰기를 한다. 물론 教授는 그가 제시한 教育內容에 관련된 질문을 할 수가 있다. 30명 미만의 學生集團에서는 학생들이 效果的으로 참여하는 非公式的인 ‘教授一活動’을 행할 수가 있는.

#### 1) 小型 講義室<sup>9)</sup>

50명 미만의 학생이 理論講義方法으로 배우는 講義室에는 가능한 한 너무 많은 融通性을 금하는 것이 좋다. 학생 1인당 22평방 피이트를 필요로 할 때에는 學生集團 人員數가 약 30명일 때이다.

약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講義室에는 학생 1인당 약 18평방 피이트로 設計한다. 小集團일 경우에는 空間이 학생의 좌석을 再配置할 수 있어야 한다.

50명을 수용하는 講義室에서는 학생이 講義에 충분히 참석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학생 책상을 일렬로 놓을 수밖에 없다. 이때에는 학생 1인당 면적이 적게 든다.

이러한 강의실을 교과서 중심의 강의실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小型 講義室은 教授現場을 바

꾸는 데 融通的이고, 適應的이어야 한다. 室內의 고정된 壁은 없어야 하고, 教室 바닥은 평평해야 한다.

#### 2) 大型 講義室<sup>10)</sup>

大型 講義室은 50명 이상의 학생이 사용하도록 設計된 교실이다. 실제로 學生集團의 大規模은 약 90명에서부터 300명까지이다. 大集團 教授(instruction)는 100單位가 아닌 1,000單位의 學生集團을 허용할 수가 있다.

大學에서 開設한 텔레비전 教育은 이미 사실화되었다. 실제로 電子機器를 통한 教授는 텔레비전이나 얼굴을 보면서 電話를 하는 소위 機器를 통한 설명 등을 할 정도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大規模 講義室이 學生 寄宿舍나 學生會館, 또는 여러 종류의 講義를 하는 전물, 심지어는 학생들의 각 家庭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大規模 講義室은 大學(校) 캠퍼스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다.

몇 가지 機能을 중심으로 보면, 大學 캠퍼스에서는 大規模 講義를 할 수 있다.

大規模 施設을 여러 종류의 강의를 하는 전물에다 설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科學館에는 科學講義室, 人文科學館에는 一般敎養 講義室, 應用藝術科學館에는 藝術講義室 등을 둔다. 또는 大規模集團 教授에 필요한 施設은 多樣하고 特殊한 분야의 建物 가까이에 위치한 單一 建物에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共同活用 建物은 大學 캠퍼스를 저렴한 費用으로 유지할 수 있고, 잘 設計된 캠퍼스에 일반적으로 포함된 파이프와 사용될 수 있는 터널을 확장하여, 合理的으로 追加費를 투자해서 개발된 地下道로 모든 建物을 연결시켜 주는 建物이다.

講義室에 施設을 集中的으로 설치하여야만 能率的이고, 融通的인 시설이 될 수 있다. 小規模 單科大學들이 생각하기로는 여러 종류의 建物에나 각각 몇 개의 大規模 講義室을 전설하는 것이 適當 몇 시간밖에 사용되지 않는 講義室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大規模 綜合大學이 생각하기로는 大規模 講義室을 多目的的, 共同으로 활용하는 것이 活用效果를 높인다고 본다.

大學生들이 거쳐가는 모든 大學의 建物의 活

用性은 모든 講義室에서 찾을 수 있다. 이때에 소규모 강의실보다는 대규모 강의실이 더욱 활용성이 높다. 만일 강의실이 어떤 학생집단의 數 때문에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 강당을 講義室로 활용함으로써 講義室을 해결해 준다.

移動空間을 講義室에 두는 것은 集中된施設을 최대로 融通性 있게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移動空間을 필요로 할 때 講堂 같은 奉仕施設은 개방되어 있다. 이러한 강당 같은施設은施設費가 제한되었을 때 고려할 만한 多目的의이고, 共用의인 特徵을 가지고 있다. 사실상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미워두는 그러한 건물을 정당화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講堂과 大規模 講義室은 서로 混用할 수 있다. 建物은 二重의 機能을 한다. 대부분의 시간에 建物은 教授施設로서 활용되고, 그 외의 시간에는 강당과 관련된 회합이나 활동들을 유용하게 해 준다. 따라서 조화를 이룬 시설들을 조심스러이 시간표로 만들어서 활용해야 하는 모든活動들은施設에 의해서 行動이 결정된다.

大規模 講義室은 實面積이 학생당 약 12평방피이트로 설계되어야 한다. 講堂의 總面積은 1인당 약 8평방 피이트 정도이다. 그러나 教授目的을 위해서 教授空間, 展示테이블, 필요하다면 電子式 教具를 설치할 수 있는 空間, 페쇄회로 텔레비전 (Closed-Circuit Television: CCTV)이나 영사기를 둘 수 있는 空間을 加算해야 한다.

예를 들면, 講義室에서 앞부분에 3피이트 깊이로 들어간 壁은 위와 같은施設들을 설치하는데 적절한 空間이다. 이 외에 講義室의 騟音을 40db 이하로 내릴 수 있는 移動壁이 필요하다.

최대 規模의 講義室을 설계할 때 必須要件은 강의실 공간을 좀더 세분하여 각 空間이 인접된 공간에서 방해를 받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大型講義室에는 教授가 마주보는 전너편 壁에 영사기 設置를 항상 해야 한다.

이때 모든 복도, 강의실, 교수가 있는 공간 등에는 소음을 제거하기 위한 方案(예를 들면 카페트 깔기)을 강구해야 한다.

어쨌든 강의실은 세 가지 분리된 기능 즉 教授機能, 學習機能, 서서비스 機能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서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 2. 세미나室<sup>11)</sup>

세미나 方法은 잘만 활용하면 教授進行過程을 아주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다. 根本的으로 세미나 方法은 10~15명 정도의 小集團에서 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때에 教授는 주어진 論題에 관해서 서로 意見을 교환시킬 수 있다. 또한 授業雰圍氣가 대체로 非公式의이고, 進行過程은 충분히 토의할 수 있도록 짜임새를 지니게 할 수도 있다. 세미나 方法은 모든 學生들이 論題에 익숙할 때에만 가장 효과적이다.

학생들이 能力を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데도, 教授가 基本的인 情報資料를 전달하는 理論講義方法을 배제하고 세미나 방법을 택하게 되면 적합하지 못하다. 아직도 세미나 방법과 理論講義方法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세미나 方法의 중요한 원리는 “학생들이 토론하는 내용을 충분히 다룰 수 있을 때 적용되는 것”이다. 학생들이 토론의 내용에 익숙하지 못할 때 이 방법을 택하면 진행과정이나 교수목적 등이 파괴된다.

세미나室은 公式的인 상황과 非公式의인 狀況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空間이다. 세미나실은 대개 450평방 피이트 정도의 면적이며, 책상을 둘러 앉을 수 있는 학생수가 15명 정도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세미나실의 환경은 따뜻하고 유쾌하고 다소 부드러운 분위기여야 한다. 색칠도 하지 않고 벽돌벽 그대로이고, 천정도 철하지 않고 교구, 기기, 자료, 설비 등이 없는 교실은 교육효과를 피할 수 없다. 이상적으로 보면 세미나실은 빛을 내는 천정, 나무판, 카페트로 되어 있고, 배 모양의 나무 책상, 형겼으로 짜지 않은 의자 등이 있어야 하고, 색채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절대로 필요하다. 이 분위기는 지적으로 자극하고 신체적으로 월 수 있게 해 준다.

## 3. 實驗·實習室<sup>12)</sup>

實驗·實習方法은 학생들이 직접 학습경험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科學實驗室에서는 理論이나 어떤 現象을 보여 줄 때 직접 경험을 통해

서 보여 주는 그려한 실험을 다루는 것이다。實驗室의 概念은 혼자 직접 스스로를 가르쳐서 근본적으로 知識을 얻는 활동 일체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원래 실험실은 教授가 전달한 講義를 보충하는 예정된 연속적인 실험을 학생이 행하는 시설이다。

실험실을 좀더 넓게 생각하면 전기시설을 사용하여 외국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語學實驗室과 같은 시설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실험실은 주어진 학습활동을 하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실험실의 학생집단 규모는 그 실험실의 규모와 범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대학에 있는 실험실은 25명 이내로 짜여진다。복잡한 실험을 하는 수준이 높은 학생집단에서는 실험실 학생 규모가 10~15명 정도로 구성된다。대학원에서 한두 명의 학생이 실험실을 갖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실험활동 범위가 주어진 실험실 공간에서 다루어지는 경우 그 범위는 어떤 또 하나의 실험실을 통합한 상당히 특수한 教具, 機器 등으로 관리된다。

### 1) 學生用 實驗·實習室<sup>13)</sup>

학생용 실험·실습실은 학생들이 教授의 指導 아래 직접 경험에 기초가 되는 지식을 얻고자 하는 장소이다。동시에 教授의 도움없이 스스로 배우는 空間이기도 하다。教授의 도움으로 경험하는 경우에는 物理, 化學, 心理學, 生物學, 工學 實驗室을 말하고, 教授의 도움 없이 경험하는 경우에는 語學實驗室, 教授機器(teaching machine), 실험실, 통계실험실, 청각실험실, 정보베이스를 듣기 위한 시설 등을 말한다。

施設을 設置하는 원칙이나 숫자상의 원칙은 학생용 실험실에서는 확실하게 세울 수 없다。왜냐하면 모든 실험실은 자기의 특수 내용과 특수 목적에 따라서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實驗·實習室을 設計하는 첫 단계는 實驗室이 達成해야 하는 機能들을 철저히 작성하는 일이다。이러한 實驗·實習室에서 고려되어야 할 모든 활동 유형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동시에 이 실험·실습실에 설치될 모두 교구, 기기, 자료 설비 등을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또한 필요한 모든 정보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전축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물질적 조건도 제시해 주어야 한다。특히 주의 할 점은 실험·실습실이 실험·실습내용 및 목적을 공간에다 변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실험 목적과 반드시 일치하는 공간조건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大學(校) 당국은 가끔 교수들의 전문성을 지나치게 믿기 때문에 전체적인 학교측에서의 행정 면에서 보는 경제성을 감안하고, 전체 시설 가운데서 균형을 이루는 설치로 해야 하는데 자칫 면밀되고 너무 세분화된 실험실을 설계할 수가 있다。

### 2) 教授用 實驗·實習室<sup>14)</sup>

어떤 교수는 '교수연구실' 대신 '교수용 실험·실습실'을 원하기도 한다。경우에 따라서는 교수연구실과 교수용 실험·실습실을 한 공간에 설치하기도 한다。

분명히 '가르치는 일(teaching assignment)'이 교수의 근본 과제이므로, 교수들은 그들이 물리학, 공학과 같은 학문을 연구한다 하여도 꼭 교수연구실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부수적으로 조사연구를 원할 때에는 언제든지 조사연구실험실을 제공받아야 한다。

실험·실습실은 100평방 퍼이트이고 아래층은 사무실을 포함한 특수실험실에 필요한 공간을 필요로 한다。예를 들어 화학·생물실험실은 실유용면적이 총 350평방 퍼이트 정도이어야만 이에 필요한 教具, 機器, 資料, 設備를 설치할 수 있다。왜냐하면 실험실은 부피가 크고, 복잡한 기기들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이다。동시에 방사성 물질과 유독가스가 상당히 많이 관련된 연구들을 하기 때문에 이를 다룰 수 있을 정도의 실험실 면적을 가져야 한다。

### 3) 教授用 調查實驗室<sup>15)</sup>

교수용 조사실험실은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졸업생 가운데서 발탁된 조교와 교수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다。대학(교)들은 대학 캠퍼스를 설계할 때 설계되어지기를 바란다。이러한 실험실에서 행하는 활동들은 사회과학 분야 통에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보관해 두어야 하고 통계처리로 해야 하는 공간이다。따라서 이 공간처럼 융통적이고 적응적이어야 하는 공간도

없다. 실험실 바닥은 마음놓고 자료처리를 할 수 있는 재료로 되어 있어야 하고 자료가 떨어져도 파손되지 않는 용통적이고 적응적인 바닥이어야 한다.

#### 4. 教授研究室<sup>16)</sup>

教授研究室은 理論講義室, 세미나室, 그리고 學生用 또는 教授用 實驗·實習室과 함께 教授目的을 수행하는 空間이다.

教授研究室은 즐겁고 있고 싶은 환경을 가짐으로써 창의성을 발휘하게 해 주는 空間이라야 한다. 신리적으로 따뜻한 느낌을 주고, 배려적이고, 꽤 조용한 空間이라야 한다. 동시에 기본적인 책·결상, 두 개 정도의 캐비넷을 설치할 수 있도록 넓어야 한다. 그리고 3人用 의자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教授들은 강의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연구실에 서적과 기타 관련자료들을 둔다. 모든 교수연구실에는 전화를 가설해야 하고, 메모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일리노이대학(the University of Illinois)에서 실시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교수연구실에 필요한 것 중 크기에 따른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 ① 한 教授에게 필요한 研究室의 크기는 125~140평방 피트이어야 한다.
- ② 두 教授에게는 200~250평방 피트이어야 한다.
- ③ 3인 이상의 교수가 있을 때에는 100~110 평방 피트이어야 한다.

### III. 大學授業施設의 多目的性·共用性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大學授業施設은 앞으로 特殊分野에 따라서 細分化되지 않고 統合化되고, 共用化되어 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예상해 보고 끝을 맺고자 한다.

첫째, 大學授業施設인 理論講義室, 세미나室, 實驗·實習室, 教授研究室 등은 실제로 單科大學의 專門分野의 성격에 따라 特性화되는 것이 아니고, 統合的이고 開放的인 教育傾向에 따라 地域社會와 또는 單科大學끼리 서로 공용할 수 있

는 大型講義室로 변할 것이다. 大型講義室 속에는 實驗·實習室 같은 施設이 附設될 것이다.

둘째, 大學行政當局의 施設行政面에서 볼 때, 經濟的인 施設管理에 입각해서 新築하지 않고도 기존 建物을 再設計하여 多目的이고 共用的인 大型建物을 활용할 것이다. 이때에 講堂과 圖書館은 위에서 소개한 大學授業施設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 제 2의 수업시설로 등장될 것이다.

세째, 모든 수업시설의 공간면적은 규정되지 않으며 용통적이고 적응적이며 다목적적이고 개방적인 대형교실이 부각될 것이다.

네째, 대학도서관을 핵(core)으로 한 모든 기존 강의실을 주변에 설치하여 이들이 다시 지역 사회 시설과 연결된 형태의 시설 설계를 한다면, 국제적인 연결된 체제의 정보센터를 둘 수 있어 새로운 학문의 보급에 적극적인 효과를 기할 수 있는 대학 수업시설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

#### <註>

- 1) Ronald G. Corwin, *Education in Crisis*(London; John Wiley & Sons, Inc., 1974), p. 283.
- 2) Ibid. p. 283.
- 3) Ibid. p. 283.
- 4) Ibid. p. 286.
- 5) Elizabeth Paschal, "Organizing For Better Instruction", in *Campus*, 1980, p.227.
- 6) Ronald G. Corwin, *op. cit.*, p. 286.
- 7) C.R. Carpenter, "Toward a Developed Technology of Instruction—1980", in *Campus*, 1980, pp. 236~253.
- 8) Basil Castaldi, *Creative Planning of Educational Facilities*, (Chicago; Rand McNally Co.), 1969, pp. 73~74.
- 9) Basil Castaldi, *op. cit.*, 280~281.
- 10) Ibid. pp. 281~283.
- 11) Ibid. p. 74.
- 12) Ibid. pp. 74~75.
- 13) Ibid. pp. 283~285.
- 14) Ibid. pp. 277~278.
- 15) Ibid. p. 278.
- 16) Ibid. pp. 276~277.